



군산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 대상 수상

농진청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 선정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선정에서 ‘고꼬마양배추’ 품종을 재배하는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가 대상을 차지해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원을 받는다.

농촌진흥청은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부문 국내 육성품종 재배단지(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등) 가운데 올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품종 농산물의 재배 규모화와 품질 균일화에 노력하며, 국·내외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우리 품종의 인지도 확보와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재배단지이다.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농산물 수요 증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을 반영해 일반 양배추의 1/3 크기인 소형양배추를 소득작물로 선택해 2017년에 재배를 시작했다.

2018년부터 소형양배추가 일반화된 일본, 대만 등에 수출을 추진하여 해외 판로 확보와 인지도 제고에 나섰고, 이후 국내 소비시장에 진입해 소형양배추

를 군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했다.

그간 판매량은 872톤 13억3,900만원(해외수출 260톤, 국내공급: 612톤), 재배면적 및 농가수 확대는 ‘18년 7.9ha, 7농가에서 ‘21년 22ha 90농가로 확대됐다.

이번 발표심사에는 농업 전문가단(5명)과 국민 참여단(3명)이 참여했으며, 결과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의 우수성과와 성공비결 등을 널리 알려 국내 육성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본보기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2007년부터 국내 육성품종 보급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단지, 도(道)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육성한 단지 가운데 매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육성품종 재배단지가 잘 정착되도록 우리 품종의 안정적인 현장 보급과 재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